DAY 20 · 2부 여기까지 온 길

왜 이제는 쓸 수 있는 AI가 이렇게 많을까 — 모두의 모델 경쟁

하루 5분 AI 수업 · 2026년 9월 26일

만드는 곳이 몇 군데에서 수십 곳으로 늘자, AI는 '쓰는 것'에서 '고르는 것'이 됐어.

한 줄로 말하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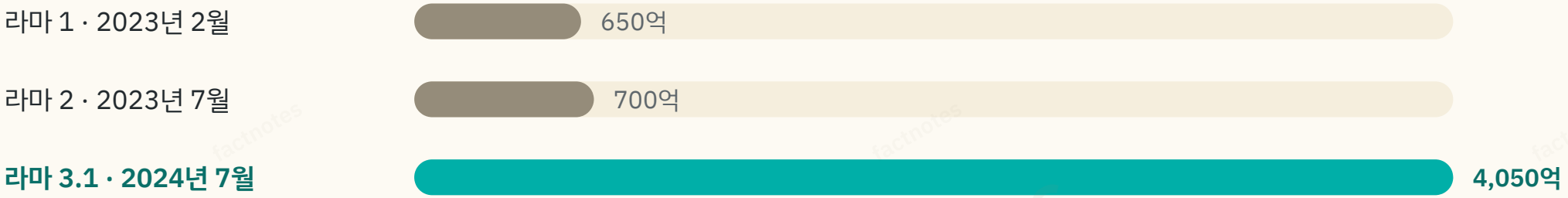
1. 2022년 말엔 제대로 쓸 만한 대화형 AI가 **손에 꼽을 정도**였어. 지금은 미국·유럽·중국·한국까지 수십 곳이 저마다 모델을 내놔.

2. 가장 크게 바뀐 건 **열린 모델**이 생긴 거야. 모델의 숫자 뭉치를 통째로 풀어 줘서, 누구나 내려받아 자기 장비에서 돌릴 수 있게 됐거든.

3. 그래서 지금은 **하나를 쓰는 게 아니라 골라 쓰는** 시대야. 값, 속도, 잘하는 분야가 다 다르고, 한 곳이 새 기능을 내면 몇 달 안에 비슷한 게 여기저기서 나와.

그림 한 장으로

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었던 모델의 크기



1년 반 만에 여섯 배가 됐어. 2020년 GPT-3가 1,750억이었으니, 그보다 큰 모델을 누구나 받게 된 거야.

핵심: 큰 모델은 문이 닫혀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깨졌다

실험 · 전후 비교

2022년과 지금, 무엇이 달라졌나

만드는 곳

전

쓸 만한 대화형 모델을 내놓는 곳이 손에 꼽을 정도였어. 이름을 다 대는 데 한 손이면 충분했지.

후

미국, 유럽, 중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여러 연구팀이 자기 모델을 내놔. 몇 달마다 새 이름이 튀어나와.

한 곳이 새 기능을 내면 몇 달 안에 비슷한 게 나와. 쫓기는 쪽이 생기니까 값은 내려가…

열린 모델

전

모델 속 숫자 뭉치는 아무도 안 줬어. 밖에서 말을 걸어 답만 받아 볼 수 있었지.

후

숫자 뭉치를 통째로 푸는 흐름이 2023년에 생겼어. 내려받아 내 장비에서 돌리고 고쳐 쓸 수 있게 된 거…

2020년 GPT-3가 1,750억이었던 걸 떠올려 봐. 이제 그보다 큰 모델을 누구나…

고르는 쪽

전

선택이랄 게 없었어. 쓸 수 있는 게 사실상 하나였으니 비교할 대상도 없었지.

후

값이 싼 것, 빠른 것, 수학을 잘하는 것, 한국어를 잘하는 것이 따로 있어. 일에 맞춰 골라 써.

고르는 힘이 쓰는 쪽으로 넘어왔어. 다만 어느 걸 믿을지 판단하는 몫도 같이 넘어왔지.

항목을 고르고 「2022년 말」 과 「지금」 을 번갈아 눌러 봐. 숫자보다 '고를 수 있느냐'가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핵심이야.

웹 수업에서 직접 해 볼 수 있어요 · next-token.net/learn/day-20/

확인해보기

세 문제만 풀어 보자

Q1 2022년 말과 지금을 가르는 가장 큰 차이는?

① 쓰는 값이 크게 올랐다
② 모델이 하나로 합쳐졌다
③ 이제 아무도 안 만든다
④ 모델을 만드는 곳이 훨씬 많아졌다

Q2 '열린 모델'이 뜻하는 건?

① 누구나 숫자 뭉치를 받아 직접 돌릴 수 있는 모델
② 광고가 없는 모델
③ 언제나 정답만 주는 모델
④ 인터넷 없이 검색되는 모델

Q3 만드는 곳이 늘면 쓰는 사람에게 생기는 일은?

① 답이 사라진다
② 골라 쓸 수 있다
③ 전기가 끊긴다
④ 글자가 커진다

왜 그런지까지 알고 가자

Q1

④

손에 꼽을 정도였던 곳이 수십 곳으로 늘었어. 쫓고 쫓기니까 값은 내려가고 성능은 올라갔지.

Q2

①

모델 속 숫자 뭉치를 통째로 푸는 방식이야. 내려받아 자기 장비에서 돌리고 고쳐 쓸 수 있어.

Q3

②

값·속도·잘하는 분야가 다 달라서 일에 맞춰 고르게 돼. 대신 무엇을 믿을지 판단하는 몫도 같이 생겨.

만드는 곳이 몇 군데에서 수십 곳으로 늘자,
AI는 '쓰는 것'에서 '고르는 것'이 됐어.

내일은 요약 — 2부에서 걸어온 길을 한 장으로 되짚어 보자.